

9월 안용주 선교사 가정 기도 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요 21:17b)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양들을 먹이고 사랑하며 섬기려 합니다.



이툼비 갈릴리교회 소식

이 곳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교회에서 가장 고령이셨던 나옴이 자매님이 소천 하셨습니다. 얼마 전 가정심방 때 건강하셨으나 갑자기 건강이 악화 되어 소천하셨습니다. 케냐에서 처음으로 가까운 분의 장례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슬픔 중의 가족들 위로하고 교회 가족들이 위로 예배와 장례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장지는 집 앞 마당이었습니다. 아침10시에 시작해서 오후3시까지의 긴 예배 시간이었지만 정말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위로했습니다.



심방 사역: 주일 아침 아이들을 위해서 우지를 준비해 주는 티나 자매님의 집을 심방했습니다. 티나 자매님은 산에 있는 집에서 혼자 아이들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단에 빠져서 먼 산에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속히 돌아오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갈릴리 교회는 매 주일 계속해서 아이들 아침식사를 준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지라는 아침을 준비하시는 자매님들께 부탁해서 제가 만드는 것처럼 사진을 찍어 봤습니다. 실력이 없으니 품이 나지 않습니다. 보내 주신 양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만나길 소원합니다. 주님의 양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먹일 수 있는 사역을 해나가길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가 서있는 곳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툼비 벤엘교회 소식

벤엘교회는 이제 개척된지 5개월이 지나갑니다. 온전한 교회 교인으로 나오는 가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교회 옆에 야외 부엌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마실 차와 간단한 음식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한 가족이 되어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장실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1월 2일에는 교회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화장실을 마무리 하기 위한 펀드레이징을 위해 특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툼비 성도님들의 손길 손길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준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물 사역

물이 부족한 이툼비 갈릴리 교회와 벤엘 교회에 우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우물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200-300m까지 들어가는 '보어홀' 이라 불리는 깊은 우물과 60m정도까지 들어가는 '핸드펌프 우물'로 크게 나누어 집니다. 갈릴리 교회 지역은 전기가 없기에 태양전지도 설치하게 되면 굉장한 비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방문한 많은 '보어홀'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한 번 고장 날 때마다 2000-3000불의 비용이 들어가 설치 된 마을에서 유지 보수 할 수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다행히 저희 지역이 설치 수리 비용이 저렴한 '핸드펌프' 가능한 지역이어서 설치 비용과 수리 비용이 저렴한 '핸드펌프우물'을 두 교회에 설치하려 합니다. 연구 조사를 끝내고 10월부터 우물 설치가 시작됩니다.



가축 사역

생계가 어려운 가정들과 학비의 부족으로 학업이 멈추어진 아이들이 있는 가정을 중심으로 가축을 나누어 생계를 도우려합니다. 가정들을 연결하여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함께 가축들을 기르고 돌봐주는 방법을 배워 마을에 연구하여 적용 합니다. 잘 진행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0월부터 시작되는 우물, 가축 사역 모두 물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욕심은 죽어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역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M 사역 :

두 교회의 사역과 우물 가축 사역의 준비로 소홀했던 M 사역을 위해서 B 지역의 경찰서 안에 개척된 교회에 방문하여 사역자 K를 만나 학생들에게 나누어 줄 성경책을 전달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일들이 줄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 자녀가 G지역의 대학에 진학하여 기독교 학생 그룹과 연결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이 신기할 뿐입니다. 이틈비에 선교에 집중하는 신학교가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갈릴리교회 베엘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2. 10월부터 시작되는 우물 사역과 가축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의 양들을 차고 넘치도록 먹고 섬기는 시간들이 이어 지도록 기도합니다.
3. 안용주 현자원 예진 아진 유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족 이야기

기도해 주심에 저희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진이는 단기 선교 여행을 가서 샤워할 곳도 없는 텐트에서 지내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건축도 돕는 일을 하고 건강히 돌아 왔습니다. 아진이도 다음 달에 가게 됩니다. 다녀오면 아이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년이 되어가면서 아이들이 케냐에 적응해 감을 느낍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